

# 家庭學의 性格과 韓國 家庭科 教育의 史的考察

조 경 희

광주 서원 전문학교 가정과

## A Historical Review on Home Economics

### Education and Domestic Science Character in Korea

Cho, Kyu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Gwangju Seowon Junior College*

#### 目 次

ABSTRACT	② 初期의 家庭科 教育
I. 序 論	2. 보호조약 시대의 家庭科 教育
II. 家庭學의 性格	① 高等 여학교령 공포와 家政科教育
1. 家庭學의 定義와 目的	② 家政科 教科書의 內容과 특색
2. 家庭學의 內容	3. 日帝治下의 家庭科 教育
3. 家庭學의 獨自性	① 日本의 教育方針
III. 韓國 家庭科 教育의 史的考察	② 家庭科 教育內容
1. 新教育의 導入과 家庭科 教育	IV. 結 論
① 開化期 以前의 女性教育	參考文獻

#### —Abstract—

- (1) Domestic science has to expand for home life and life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 of research, which placed position on the synthetic science which maintains the length or breadth connection of the sphere of domestic science and various basic sciences with culture, society nature, etc.
- (2) There must be effective construction of a curriculum for the sphere of domestic science with various science, art, culture and specially education.
- (3) The changing status of women, from the home to equality of the sexes; from subordination which was influenced by women liberation in advanced nations.
- (4) At the prinirctine age, the people got a blood-relation marriage it was mixed

- merriage-in the group life,
- (5) The large family system was achiev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social situation and the family become the kernel of advancing civilized society.
  - (6) Woman's status was suppressed as CHIL-KE-CI-AK and three degrees of dependence absorbed by a woman in the home. After unification SINLA, in the KORYO Period, the CHOSUN dynasty period, at that time assumed the helm of state for worship of Confucianism and then changed family system.
  - (7) From the time of the Liberation to the present there are great cries for equality of the sexes, a gradual improvement in the position of woman and also the sole of woman.
  - (8) In relation to our nations domestic science, the rise of modern education for women was accomplished by a deep-rooted respect for Confucianism before the Korea-Japanese union.
  - (9) As the Japanese used colonization as an instrument for world domination, under their domination the true meaning of domestic science education could not be achieved.
  - (10) After 1955 we had active interchange with foreign scholars, student's going abroad with a desire for research, growth to domestic college status, establishment of more subjects for each sphere of domestic science, increase in population of domestic science etc. This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and accomplished progress to the present day.

## I. 序 論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家庭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입장에서 研究의 對象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무계획적으로 발전해온 가정학에 대해서 이제는 올바른 체계를 세워야 할 때임을 절실히 느끼는바이다.

世界的으로 볼 때 가정학은 1 세기가 넘는 歷史를, 韓國에서는 半世紀에 가까운 歷史를 지나는 동안 急變하는 社會情勢에 따라서 우리의 家庭生活 樣式이나 人間的 意識權造 등에 커다란 變化를 일으키게 되었다. 따라서 生活 問題解決의 方向을 제시하는 家庭學이 社會 요청에 迅速하게 응할 수 있는 生動하는 학문으로서의 面貌를 갖추기 위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 根本理念 등을 再檢討해야 할 重大한 時期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선조가 教育에 對하여 어떻게 생각하였으며 어떠한 제도와 內容으로 敎育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896년 이화학당에 가사과목이 생긴것을 기점으로 기정과 교육은 다양한 變化를 가져왔다. 初期 家政科敎育은 美國의 여선교사에 의해 교과내용이 짜여지고 교수가 되었었다. 本研究은 學問으로서의 家政學의 性格을 파악하기 위하여 家政學의 內容들을 살펴보고 家庭의 발달과 女性의 役割을 통하여 家政科敎育을 史的으로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 II. 家庭學의 性格

家政學은 社會, 經濟 및 技術등이 發展하고, 번역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問題를 解決하는 役割을 할 수 있는 學問으로 強力히 發展하기 위하여 家政學의 性格을 分析 檢討하여 앞으로의 家政學의 展望을 모색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 1. 家庭學의 定義와 目的

家政學의 定義에 對해서는 여러 意見이 있다. 美國 家政學會에서는 「家政學은 家政生活을 위한 個人을 敎育하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物件과 用途의 改善에 힘쓰고, 個人과 家族의 變化하는 要求를 充足시키는 手筈의 發見, 地域社會, 國家, 世界의 狀況을 家族生活에 調和, 適應시키는 데 目的을 두는 學問이다」라 했으며 道喜美代, 渡邊ミチ는 「家政學은 家庭生活의 向上에 기여하고, 家族의 幸福의 增進을 기함을 前提로 하고 家庭生活에 관한 本質의 考究 및 家族이나, 家庭生活에 관한 知識, 技術의 科學的 實踐的 考究를 하는 學問이다.」<sup>(1)</sup>라 하고 S. F. cippeatt와 H. I. Brown은 「家政學은 끊임없이 變化하고 있는 社會에 있어서의 家庭 및 家族生活의 福祉 또는 幸福을 達成하고 그것을 維持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많은 學問위에 세워진 應用學問이다」<sup>(2)</sup>라 記述했으며 1969년 日本 家政學會는 「家政學이란 家庭生活을 中心으로 이와 密接한 관계에 있는 社會事象으로 延長시켜서 더욱 이들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對해서 人的, 物的兩面으로 研究하여 家庭生活의 向上과 더불어 人間開發을 기하고 人類의 幸福增進에 공헌하는 실증적 實踐的科學이다」<sup>(3)</sup>라 하고 있다.

以上の 여러 意見을 살펴보면 結局은 家庭과 이에 準하는 生活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家庭生活을 中心으로 하고 이에 準하는 施設과 經營體도 研究의 對象으로 하고 이것들이 自然 社會, 人文科學的 立場에서 研究되는 것이 今日的 社會狀勢에서 妥當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家政學은 家族의 幸福增進과 人類의 福祉增進을 家政學의 一般의 目的으로 하고, 家庭生活의 向上을 위해서 健康, 家族의 親和와 民主的關係, 精神의 安全, 經濟生活의 安全, 適切한 敎養, 娛樂, 子女의 出生 및 敎育, 科學的 藝術的인 依, 食, 住, 家庭生活技術의 向上, 傳統의 維持와 改善 地域社會, 國家 人類에의 貢獻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 져야 하며 나아가서는 人間開發을 위해서 人間成長 發達에 對한 研究를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即 家庭生活은 人間生活의 基礎가 되므로, 家庭生活을 中心으로 個人 家族 및 地域의 生活에 對해서 研究하게 되며 最近 家庭의 機能이 次次 社會化되는 傾向에 있으므로 家政學의 研究도 이와 密接한 關係에 있는 社會까지 그 범위가 넓혀서 그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대해서 研究하여 人類의 幸福增進에 貢獻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2. 家庭學의 內容

大學의 家政科는 食物專攻과 被服專攻으로 나누어지고 學理의 연구 발표도 食物과 被服에 관한 Thema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옛부터 재봉 및 요리가 주부 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타성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의 家政經營은 衣食住 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가장 합리적이고 날로 새로와져야 하겠다.

家庭學은 가정경영(Home making)의 方法을 研究하는 學問이므로 物質面을 초월하여 인간관

계에 입각한 면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과거에는 물질면에만 너무 치중되었으나, 물질이란, 행위, 수단의 일부로서 이것이 가정학의 전면적인 대상이 될수는 없다. 그러나 생활의 모든 학문을 전부 분할 할수도 없는 것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내용은 가정학을 독자성 있는 학문으로 成立시킬 수 없다. 가정학은 여러 학문중에서 어떤 부분을 목적하고 研究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진술한바와 같이 가정학은 生活하는 方法 또는 가정을 운영하는 방법을 담당하여 研究하는 學問이라 하겠다. 우리 韓國의 家政科의 실태를 그 발전사에서 더듬어 보면 과거에는 賢母良妻의 보수적인 실천윤리와 경험에 의한 기능 교육을 중요시하다가 점차로 자연과학을 도입하여 科學化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러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해방후 가정과가 전문학교로 부터 대학으로 편성될 때에 이학부에 소속되어 이학사(B.C.)의 호칭을 얻게 되었다. 근래에와서는 社會科學의 方法을 채택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새로운 가정학의 구상은 역시 人文社會 自然의 전면에 걸쳐 研究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生活向上이라든지 合理化에 目標가 必要하므로 이러한 目標를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人文科學의 方法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 3. 家庭學의 獨自性

家政學의 獨自性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學問과는 특이한 有用性을 지니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現在 진보하고 있는 學問의 世界에서 어떠한 분야를 담당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 他學問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든지 또는 제반學問을 종합한 것으로서 獨自性을 발휘하지 못하면 가정학의 특징은 널리 살릴 수 없게 된다. 가정학의 最大의 目的은 綜合生活 技術學 또는 實踐生活 技術學이라고 본다. 이것이 다른 학문과 특이한점이다. 즉 예를들면 영양학, 식품학 식품의 생물학 섬유학 방직학 농예화학 양조학등 同系學을 계열하는 것은 家政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즉 가정학은 이와 같은 學問을 기초로 하고 또는 보조를 받는 것에 限할 것이다. 또 기성과학의 知識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行動의 方向을 정하고 이를 行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家政學은 또한 應用, 實用 實踐學이다. 다른 科學이 그 學問의 추구를 目的으로 하는데 비하여 家政學은 學問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研究를 生活向上의 수단방법으로 쓰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一般學者間에 理解가 잘 안되어 「現在의 家政學의 研究는 各 專門科學 進보에는 공헌이 되지만 家政學 자체로서는 진보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러사람들은 純粹科學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應用學 實踐學은 純粹科學의 성과를 應用하고 반면에 순수과학은 應用實踐學에서 問題를 얻어 연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호 관련이 되어 발전하는 것이다. 家政學은 適應科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生物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生存할 수 없으니 비적응자는 멸망할 수 밖에 없다. 또 환경 생활변천에 대응하여 살아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計劃的生活學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항시 정세의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을 확립하고 그것을 實行하는 方法을 研究하도록 해야겠다.

이와 같이 家政學은 現在 및 장래의 社會生活에 必要한 것을 研究하고, 必要치 않게 된것과 또는 必要에 充當된 部面은 他의 學問에 맡기도록 할것이다. 이렇게 하여 계통적으로 組織 構成되지 않고서는 家政學이 學問으로 完全히 獨立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 Ⅲ. 韓國 家政科 教育의 史的考察

#### 1. 新教育의 導入과 家政科 教育

##### ① 開化期 以前의 女性教育

구한말까지는 일상생활에 必要한 필수적 기술 예를 들면 바느질, 음식 만들기등의 습득훈련과 예의범절을 엄격히 교육하였다. 중류 이하의 여성들은 거의가 문맹이었다. 그러나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문 문자교육을 시켰다. 한글로 된 훈향전 박씨전등의 소설은 대개 읽을 수 있었다. 중류이상의 가정에서 교육한 내용은 史記 論語, 詩傳, 小學, 女四書등과 상식으로 百家性 先世譜系, 歷代國號, 聖賢의 이름등을 교육하였다. (5)

더우기 세종 38년(서기 1446)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생긴 뒤에는 중류이상 가정의 여성들의 수학내용 및 범위는 대체로 敎訓書와 이야기 책의 두가지로 大別할 수가 있었다. 敎訓書는 后妃明監, 內訓, 三綱行實, 烈女圖, 小學諺解 五倫歌 警民編, 權民歌, 諺文四書 등이었고 이야기 책은 그 종류가 1,100종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읽는 책이 심청전, 속향전, 박씨부인전, 옥류몽, 倡善감의록, 사씨남정기,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백학선전, 습성의전, 유충열전, 제마무전 삼국지, 조웅전, 소대성전, 양풍운전, 흥부전 등이 있고 내용은 효열과 충의를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 가정과 사회를 중심으로 한 것도 있으며 탐관오리의 악행 영웅호걸의 쾌사를 성찬한 것도 있어서 부지중 교양을 주는 것이 많이 있었다.

수많은 제약속에 개화사상이 사회전반에 침투된 1830년대에 여성교육의 必要성과 남녀불평등의 사회구조가 비판되면서 강력히 대두된 것이다. (6) 1882년 美國과의 修好條約이 체결된 4년후인 1886년 서울에는 미국 북감리 교회에서 설립한 梨花學堂과 培材學堂이 한국 최초의 기독교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두학교는 同年 9월에 政府가 설립 운영한 育英公院(1894년 廢校)과 더불어 우리나라 現代式學校의 嚆矢를 이룬다. (7) 이화학당은 학생수가 1887년에 12명이었고 10년후 1896년에야 50명으로 증가 하였다. 개교 12년만인 1897년 한옥 구교사를 헐고 그 자리에 벽돌 2층의 양식 新校舍를 짓기 시작하여 4년후에 完成되었다. (8) 최초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자 한 목적은 英語를 습득하여 사회진출을 기도하기 위해서 였고 교육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빈민 고아로서 自發的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라 宿食을 해결하기 위한 方便的 入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887년부터 梨花學堂 敎師로 부임한 로드 와일러(Miss L. C. Rothweiler)는 梨花學堂의 教育目的을 그 초기 단계에서 부터 순수한 가정 부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직접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女性教育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 ② 初期의 家政科 教育

이 시기 가정과 교육은 1890년대 개화와 더불어 기독교 여선교사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최초의 여학교 실태를 살펴보면 모두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의, 식, 주, 까지 포함한 무상교육이었다. 입학자격은 연령과 소학교의 졸업여부가 아니고 기독교 신자가 되겠느냐에 따라 학부형과 동반아래 입학이 이루어졌다. 교과목은 체계적인 것이 아니고 새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확보될 때마다 과목이 첨가되었으며 교수어는 영어였다. 이 당시 실시한 가정과 교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포드(D. L. Gifford)의 보고에 의하면 「이 학교의 가정과는 재미있

다. 학생들이 재봉과 자수(한국것과 외국것)를 배우는 외에 연장한 학생들이 입는 옷 전부를 손질한다……」라고 하여 가정과 수업의 단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sup>(6)</sup> 교과목은 가사, 편물, 수예, 침공(針工) 등이었다. 교과서는 없었고 단지 必要한 때는 등사물에 의존하였으며 가사는 실제로 아침 저녁을 지어 먹는데서 실습이 되었고 침공은 오늘날의 재봉으로 그 당시는 주로 옷을 해입는 것으로 침공과 수예를 특별히 취급하여 많이 가르쳤다. 초기(1890년~1905년 이전) 가정과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여성교사들이었고 한국인은 재봉만을 지도 하였는데 일정한 자격이 없이 경영자가 인정하는 양가집 규수로 하여금 가르치게하였다. <sup>(6)</sup>

## 2. 보호조약시대의 家政科 教育

### ① 고등여학교령의 공포와 가정과 교육

甲午更張으로 과거제도도 폐지되고 남자에게도 서민 대중에 까지 교육의 기회와 사회 참여의 길이 開放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는 이같은 기회가 閉鎖되었던 상황은 오히려 여성을 자극하여 자신의 權利를 찾게하는 요인이 되었다. 1898년 10월 11日 100여명의 찬양회 부인들은 직접 대궐문밖까지 示威行進하여 高宗에게 정부가 여학교도 설립 운영해줄 것을 탄원하였다. <sup>(10)</sup> 1908년 4월 2日 칙령22호로 고등여학교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여성교육에 관심을 표시한 최초의 일이었다. 고등여학교령에 따른 교과목은 표 1과 같다.

고등여학교 각과 교과목

(표 1)

학 과	교 과	목
예 과	국어, 산술, 이과, 지리, 역사, 수신, 창가, 도화제조 수신, 국어, 일어, 한문, 역사, 지리, 이과, 도화, 가사	
본 과	수예, 음악, 제조, 단 수예중 자수, 편물, 조사, 낭물, 조화 및 활쟁의 한과목 或은 여러과목을 수의과목으로 하고 외국어(일어제함) 교육대요를 수의과목으로함. 수신, 국어, 미술, 음악, 재봉, 수예(자수) 편물, 조사	
기 예 전 수 과	낭물, 조화 및 활쟁 일과목 혹 수과목으로함. 단 일어 및 가사를 수의 과 목으로 함.	

- 註 ① 봉법 : 오늘날의 옷의 재단법  
 ② 재법 : 바느질법  
 ③ 보법 : 헤어진곳 길는법  
 ④ 組絲 : 실의 매듭을 이용하여 만드는 법  
 ⑤ 囊物 : 염장이나 주머니등을 만드는법  
 ⑥ 활쟁 : 조리실습

각 학과목 교수요지중 家政科 교수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家事, 정리상에 必要한 知識을 얻게 하고 겸하여 근면 절검 질서 주민 청결을 상하는 사상을 양함을 함 ② 수예, 여자에게 적절한 재봉 및 기타의 수예에 유숙케 하고 겸하여 근면, 절약 이용의 습관을 양함을 요함. 재봉은 보통 의복의 봉법<sup>(1)</sup>, 재봉<sup>(2)</sup> 보법<sup>(3)</sup> 및 재봉기계 사용법의 일반을 수함이 가함. 재봉외에 수예는 자수, 편물 組紵<sup>(4)</sup> 囊物<sup>(5)</sup> 조화 活幀<sup>(6)</sup> 등 토지정황에 적절한 자를 수함이 가함이다 하여 구체적인 교육目的과 內容을 밝혔다.

梨花學堂 (1886년 설립)의 초기 敎育은 초등敎育이며 중등과는 18년 후인 1904년에 대학과는 1910년에 시작되었다. 敎育과정을 살펴보면 1886년 영어 성경을 가르쳤으며 1889년에 諺文 생리학 추가 1891년 성악 올겐 추가 1892년 한문 수학 지리 역사 과학 체조 추가 1896년 가사(재봉, 자수) 추가 1908년 초등과에 국문, 한문, 작문, 산술, 도화, 지지(地誌), 초보체조, 영어, 중등과에 성경, 한문, 도화, 이과 부기, 대수, 초보 체조, 고등과에 성경, 한문, 대수, 기하, 삼각천문학, 심리학, 교육학 물리, 화학 영문학, 만국지지, 고등생리, 경제 역사를 가르쳤고 選科及隨意科에서는 음악 針線을 가르쳤다.<sup>(8)</sup>

② 家政科 敎科書의 內容과 特色

여학생을 위한 「여자 수신 교과서」나 「가정학」 등의 교과서는 대부분 1906년 경부터 일반사립여학교가 속속 설립 되던 시기 이후에 출판되고 있다. 초기의 가정과 교과서는 1907년 (융희 원년)에 발행되었다. 발행부수는 3권으로 남자들에게 의하여 편찬된 역사로서 그 종류는 표Ⅱ와 같다.

1907년 발행 가정과 교과서

(표 Ⅱ)

교과서명	발행년월일	저자 및 역자	재본형식	총페이지	교과서의국체	정가	출판국
국문신찬가정학	1907년 8월	저자: 미상 역자: 박정동	한식제본	PP 95	국문체	30전	중앙서관
한문가정학	1907년 12월	저자: 下田歌子 역자: 현공엽	양장본	PP 184	한문체	일원	일한도서
신편가정학	1907년 2월	역자: 현공엽 박영부	양장본	PP 262	국한문체	90전	일한도서

국문신찬가정학의 저자는 미상이며 1907년 8월에 발행한 교과서이다. 이책의 특색은 가정과 전반의 내용을 수록치 않고 다만 육아법과 가정간호 및 주생활의 일부에 국한되었고 식생활과 의생활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제일장에는 어린아이 교양 태중에서의 교육 적막일때 교육, 어린이의 의복, 음식, 거처, 어린이 예방주사 놀이와 장난 등에 대하여 기록되었는데 내용이 조부적이고 극히 추상적인 표현방법이었다.

제일장, 가정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가정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가정교육은 지혜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덕으로 교육하여야만 신체를 강건케 하고 정신을 단련시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삼장 노인의 공경과 봉양, 병간호, 제사장, 가정건강 즉 병의 발병원인, 치료법, 병실과 환자간호, 제오장, 사교 방편과 조대, 연회, 서신, 선물, 제육장, 오늘날 주생활에서 다루어지는 풍수해 방지와 진재와 적환에 대하여 다룬 것은 당시의 시대성의 영향인 것 같았다. 제칠장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하인을 부리는 법 등이 기록되었다.

## 家政學의 性格과 韓國家政科教育의 史的考察

한문가정학의 저자는 시모다 우다코(下田歌子) 역자는 현공염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 중국인 여학생들을 위한 가정 교과서를 번역한 것이다. 1907년 12월 일한도서 발행으로 오늘날의 가정학 개론과 같은 책으로 의, 식, 주, 육아, 경제, 가정관리, 가족관계, 가정예법등 가정과 교육내용 전반에 걸쳐 수록되었으며 총 5권 184페이지로 되어있다. <sup>(6)</sup>

新編 家政學은 隆熙元年(1906년) 12월에 玄公廉, 朴永武가 其譯한 것인데, 이책중 “맹자 가타사대 國의 본이 家에 在하다 하셨으니 此는 家政의 得失이 一國의 興亡盛衰에 依關함을 表彰함이다. <sup>(11)</sup>

家庭教育의 저자는 남궁억이다. 1908년 학부령 제16호로써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공포한 이후의 교과서이다. 1914년 11월 5일 유일서관 발행으로 교과서의 총페이지수는 100페이지이며 한식제본으로 값은 30전이였다. 내용은 영문을 번역하여 한국가정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육아법과 예절교육을 중요시하였고 식생활 식사법 食品分析表등이 수록되어 있다. <sup>(6)</sup>

女子修身教科書는 隆熙 3年(1909) 2月 盧炳喜가 著述한 것인데 “사람이 이 세상에 나매 마땅히 행할 本務는 道와 德이다……. 人倫에 깨달아 행하는 것을 궁구하고 생각하여 그 방법을 기록하여 여학교의 교과서가 될까 하노니 좋은 여자가되라 하거든 이 책을 공부할것ियो. <sup>(12)</sup> 新婦가 머느리 노릇할 때 억울한 분한 일이 많이 있나니 먼저 참고 견디면 후에 큰 복이 되나니라 <sup>(12)</sup>”에서는 전통적인 머느리의 美德를 가르치고 있다.

### 3. 일제 치하의 家政科 教育

#### ① 일본의 教育方針

日本은 광무 8年(1904) 8월 한일 합방서의 조인 이후 한국을 강제 점령하고 식민정치를 시작하였다 <sup>(13)</sup>. 韓國의 言語 傳統教育은 韓國女人에게 日本裁縫, 日本꽃잎이, 日本禮法 <sup>(14)</sup> 까지를 가르치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家政學教育은 허수아비와 教育의 不在現狀까지 나타났다. 日本의 目的은 단지 전쟁물자의 보급과 물자의 생산공급에 必要한 전문적 직업교육에 목적을 두었다.

#### ② 가정과 教育內容

교육이 인간의 생활에 변화를 주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학교의 가정과 교육은 의도적으로 조직화된 가정생활의 지식기능을 부여하며 과학시대와 병진해 나갈수 있는 가정인 양성의 必要性 등에서 볼 때 여자에게는 가정이 필수불가결의 과정이라 볼수 있겠다. 이러한 가정과 교육은 일제치하에서 그 목적이 「我國家의 본의를 면백히 하고 황국여자의 임무를 자각시킴과 동시에 가정에서 실무를 습득시키고 근로의 습관을 길러 주부와 母로서의 덕조를 함양한다」고 했음을 볼 때 식민지하에서의 교육은 지배자의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하겠다. 192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가정과 교육의 실습을 위한 시설이 여학교에 하나 둘씩 갖추어 지게 되었다. 수예실, 조화실, 재봉실, 가사실습실등이 일부 사립여학교에만 있었다. 1921년 8월 가정학을 전공한 미스 모리스 (Miss Harriett Palmer Morris)에 의해 이화학당에 가사실습실이 설치되어 가사실습을 하였다. 실습내용은 수예는 한국고유의 풍경을 주제로한 선죽교, 송학, 무궁화 등을 수 놓았고 재봉은 헌재와 양재로 구분하여 가르쳤다. 가사실습은 한국음식과 서양음식 등의 조리실습과 김장담그는법등을 실습하였고 그 당시는 학생이 적었기 때문에 개별지도가 가능하였다.



가정과 교육을 위한 기관의 설립이 실현된 것은 1922년의 가정교육령에 의거하여 1925년에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1938년에 숙명여자 전문학교가 여자교육을 위한 전문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전문교육 기관안에 가사과가 설치된 것은 1929년 이화여자 전문학교였다. 그 당시의 입학자격은 고등보통 여학교를 졸업한 자를 선정하였고 설치목적은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최초의 중요단위인 가정을 이상적으로 만들고 국가사회에 기여토록 하였다. 전문학교의 가사과 학습내용은 음식의 영양분석 온돌부엌의 개량 작곡 요리실습 식품만들기, 식이요법, 영양식, 미용식, 정원가꾸기, 가축기르기 까지 생활을 분석 평가하고 연구 개선하여 나아가서는 가정의 가족관계 가정경영관리의 의, 식, 주 생활 건강생활의 개선향상을 했다.

가정여학교(1938) 등이 가사교육을 위한 여성생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수업년한은 3년이었고 학급편성은 학교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었으나 본과 연구과 보수과를 두었으며 교과목으로는 예법(차다루기, 반상다루기, 과일다루기, 제기다루기, 몸가짐과 생화, 편물, 가사(이론 및 요리실습), 염색, 세탁, 수예, 양재, 한재, 폐물의 이용등) 가정과 전반에 걸쳐 가르쳤으며 한국고유의 풍습 및 가법을 중요시 한 결과 민족교육으로써의 가사교육을 실시하였다<sup>(6)</sup> 오늘날 이와같은 가정학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학제개편에 따라 여자중, 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 1947년 大韓政家學會가 創立되고<sup>(15)</sup> 1948년 大韓民國이 樹立되고 新教育法이 制定되어 學問의 基礎가 잡히려고 하던차 1950년 6.25 동란으로 인하여 다시 혼란기를 격을수 밖에 없었다. 피란시 假敎諭에서의 授業이나 研究가 正規的으로 이루어질수 없었다. 還都後 새로운 意慾을 가지고 教育이 再建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大韓家政學會는 1957년 11월에 그 創刊號를 發刊하였고 全國七個綜合大學內에 가정대학이 設置되었고 從前에는 없던 여러 學科(16個學科)<sup>(16)</sup>가 家政學傘下에 생겨났다. 特히 1950년 후반에서 60년 사이에는 多數의 現職敎授나 卒業生을 外國(主로 美國)에 유학보내는 至極히 活潑한 時期였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 IV. 結 論

以上에서 고찰한 바와같이 開化期를 前後하여 한국의 가정과교육은 그 양상이 정립 단계로 전향하였음을 알수 있었다.

### ① 家庭의 發達과 女性의 役割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男性과 女性間에는 서로 다른 役割의 分擔이 있기 마련이다. 男性은 주로 課題의인 일을 맡아 왔고, 女性은 情緒의인 일을 맡아왔다. 情緒의인 일보다 課題의인 일이 중요해짐에 따라 男性의 地位는 女性의 地位보다 우월한 것으로 評價됨으로써 男性支配의 시대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西歐社會에서도 女性이 男性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것은 19世紀 末葉이었고, 選舉權이 부여된 것은 20世紀初였다.

우리 나라는 極히 最近까지 女性의 隸屬的 地位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가 解放과 더불어 비로소 先進國의 模型에 따라 女性에게 教育이나 政治에 있어서의 平等權이 自動的으로 부여 되었다. 그러나 社會的 慣習으로서의 男女間의 差別意識은 아직도 解消되지 않고 있다.

1960년의 新民法의 制定은 形式上으로 男, 女平等을 賦與하는 契機를 이루었지만 內容上으로는 뿌리 깊은 傳統의 힘이 男, 女間의 不平等을 그대로 是認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사회생활의 基本下部構造는 전통적 遺制로 固守되어 있고 表層的인 上部구조가 서서히 개방성을 띤 民主型으로 변형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18)

家庭이란 한 집 안에 모여사는 가족 및 그 生活까지를 말한다. 原始社會에 있어서도 家庭은 있었다. 原始時代의 人類는 집단생활속에서 血族結婚을 하는 亂婚의 가족형태였다. (19) 학자들 사이에는 그 始源에는 原始亂婚說, 社會主義的 家族發展說, 原始單婚說등이 있었다.

白南雲에 의하면 檀君神話가 성립될 무렵에는 上古朝鮮의 사회가 이미 家父長權의 確立, 蓄妾制를 同半한 一夫一妻制, 奴隸制의 흔적을 보임으로써 父權이 確立되고 父繼中心의 出自(descendent)가 이루어지고 있다. (20)

家庭은 같은 祖上 아래서 全体意識을 가지고 融合함으로서 一体化되어 連帶的 意識을 가지고 한 가정에 있어서의 生活의 共同과財의 共有가 이루어 졌는데, 이러한 모습은 엄격한 家父長制度下에 있던 朝鮮朝時代 우리 가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朱子學의 導入以來 女性의 生活는 幽閉속의 順從을 強要당하였으며, 마침내 婦女보다 節婦의 境地에 接近해가게 되었다. (21)

여성에게 주어질 자녀의 출생과 양육이외의, 生業에 종사하고 家庭生活을 영위하는데에는 男女간 그권한에 優劣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이 재래의 原始的 農耕, 採集과 紡績에 종사하는 동안, 남성들은 金屬化된 導具를 가지고 금속의 새로운 能力과 위력에 힘입어 앞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上古 우리나라에서 보면 紀元前 7世紀頃 一次 青銅器文化가 傳來되고 뒤이어 二次 青銅器文化의 전래로서 종래의 民族社會 단계에서 部族社會 단계로 거기에서 다시 部族聯盟國家로 발전하여 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家父長權이 確立되었으며, 따라서 女性은 男性에게 從屬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古代國家로서의 體制가 정비되어 王權이 強化되고 그후 儒敎를 받아들이기 이전까지는 家庭안에서의 女性의 지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女性들의 생활 규범은 유교적인 도리에 얽매이게 되었으며, 家庭안에서의 女性의 역할은 上流社會의 경우 武人인 男便의 出戰中에는 홀로 집안을 治理하여야 하였고 官吏로 外任에 나갈때에는 함께 따라 다녀야 했으며, 서민층의 경우 女人들은 搖役에 動員되고 戌자리 질러간 男便과 아들이 없는 집을 꾸러 나가기에 애를 써야만 했다.

統一新羅以後 高麗時代에 들어 와서는 家父長制度의 確立과 유교적인 倫理의 강령로 婦德의 理想을 全的으로 유교가 가르키는 바에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말부터 유교적 禮敎가 더욱 띄게 되었으며 朝鮮王朝에 들어와서는 崇儒政治와 함께 家族制度에 큰 변화를 주어 家庭안에서의 女性의 대우는 단적으로 「七去之惡」과 三從之義로서 대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離婚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法規를 主眼으로 하였다기 보다 七出, 三不法의 禮敎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여 진다. (22). 七出이라 함은 不事舅姑, 無子, 淫佚, 妒, 惡疾, 多言, 竊盜 일곱가지 離婚條件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일곱가지 條件에 드는 婦人에 대하여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棄去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三不法이라하여 與共更三年喪 (夫의 父母를 위하여 三年喪을 服한 경우) 先貧賤後富貴 婚姻 당시에 貧賤하다가 後에 富貴하게 된 경우) 有所娶無所歸 (妻가 離婚당한 후에 復歸할 집이 없는 경우) 에는 비록 前七出에 속했다 하더라도 이를 棄去하지 못한다. (23). 당시의 女性의 役割은 三從之義에 충실하고 七去之惡을 범하지 않으며 子婦로서,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데 있었다.

이와 같은 男尊女卑의 이데올로기는 李朝時代의 學校인 書堂이나 家庭에서 더욱 強調되어 三從之義나 烈女不更二夫의 義가 一般民衆에 까지 받아 들여지게 되었고 따라서 男女를 上과 下의 序列로 갈라 놓게 되었다<sup>(24)</sup>.

朝鮮王朝末 開化期를 맞이하면서 女權의 伸長과 더불어 女性의 役割은 구습이 하루 아침에 변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그대로였다. 그리고 해방후 오늘날에 와서는 大家族制度의 붕괴와 核家族으로의 불열로 男女同等權을 부르짖고 있으며 女性의 지위가 向上되고 그 役割도 다양해지고 있다.

## ② 韓國 家政學의 發達

朝鮮時代前期에는 女性에게 忠, 孝, 烈의 三綱行實中 烈에 치중한 形式教育을 主로 하고 後期에 이르러서는 女性生活의 실제적인면, 즉 修身(마음가짐, 말솜, 몸가짐, 內外法, 出入 學問 勤勉, 迷信) 禮節(事親, 夫婦, 兄弟, 親戚, 下率, 奉祭祀, 接賓客, 奴婢) 育兒, 子女教育 家族管理(節約, 貸借, 賣買) 등 內容을 담은 교육을 가미 하였는데 女學, 烈女傳, 女誠, 女則 內訓 等, 中國書籍을 一部層의 婦女子가 家庭에서 읽는 程度이었다.

過去의 우리역사를 보면 朝鮮時代以前은 勿論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도 男子를 爲한 教育기관 으로는 成均館, 學堂, 鄉校, 書院, 書堂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教育기관이 全國적으로 있었으나 女子를 爲한 形式教育의 制度는 全然 찾아 볼수가 없다<sup>(25)</sup> 그것은 朝鮮時代에는 儒敎를 唯一한 生活倫理의 規範으로 삼아왔던만큼 男尊女卑思想의 極限化로 因하여 女性의 地位나 生活文化는 尊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狀況에서 制度化한 家庭學 教育이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時代이었고 우리나라의 制度化한 家政學教育은 利花學堂創設을 그 始初로 하여 이루어졌고 1955년 이후 부터는 外國學者와의 활발한 교류, 留학생의 과견 研究意慾의 高조, 家政大學으로의 승격 및 家政學 各分野의 學科增設, 家政學 人口의 增加등 美國影響을 크게 받으면서 飛躍的인 發展을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參 考 文 獻

- 1) 道喜美代, 渡邊ミチ, 家政學, 有斐閣雙書 1969.
- 2) dippeatt, Selmaf, and Helen I, Brown, Focus and promise of Home Ecomics, The Macmillan Co, New York, 1961.
- 3) 原田, '大韓家政學原論 に対して', 家政科教育, 家政教育社, 44卷 13號, 1970.
- 4) 金秉高, 黃慧性, 家政學論, 博英社, 1970. pp. 11~13.
- 5) 한국문화 研究院, 論叢, 제28집, 利花女子大學校, 1976.
- 6) 玄公廉, 朴永武譯, 新編家政學(京城: 日韓圖書株式會社), 1906. P. 2.
- 7) 盧炳喜, 女子修身教科書, (京城, 博文書館, 1909. pp. 20. 77)
- 8)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1964.
- 9) 李泰賢, 家政學原論, 高大出版部.
- 10) 大韓家政學會, "대한가정학회 역력 및 실적" 대한가정학회지, 제7호 .1969.
- 11) 문교연감 1974.
- 12) 家政大學教授論文集, 梨花女子大學校, 1976.

- 13) 張明郁, 家庭管理學, 敎文社, 1975. P. 16.
- 14) 金璟鎮, 李容億, 張壽慶, 朴春子, 朴美子, 邊尙淑, 朴鍾順 共著, 家政學概論, 螢雪出版社 (1976) P. 389.
- 15) 白南雲, 朝鮮社會經濟研究史, 昭和8年.
- 16) 金龍德, 婦女守節考, 亞細亞女性研究Ⅲ, 淑明女大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 17)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1969. pp. 387. 485.
- 18) 李兌榮, 韓國離婚制度研究, pp. 17~18.
- 19)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 P. 510.
- 20) 梨花女子大學校,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韓國女性史Ⅱ, 梨大出版部, 1972.
- 21) 鄭相閔: 韓國新敎育 百年史料, P. 30.
- 22) 대한가정학회지 제11호 1권 사단법인 대한가정학회, 1973. P. 92.
- 23) H.G. Appenzeller "methodist Episcopal church Report for 1886" 吳天錫, 1964. 「韓國新敎育史」P. 59에서 再引.
- 24) 梨花 80年史, P. 58. P. 65.
- 25) L.C. Roethveiler, 1892. P. 88.